

무역상무연구  
제70권  
2016. 5, pp. 109~133.

논문접수일 2016. 05. 10.  
심사완료일 2016. 05. 26.  
게재확정일 2016. 05. 27.

##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특징 분석 및 투자확대 방안 연구

유자영\* · 이지나\*\*

- 
- I. 서론
  - II. 선행연구검토
  - III.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 및 특징 분석
  - IV. 중국의 對韓투자 현황 및 특징 분석
  - V. 결 론: 對韓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 

주제어 : 중국 ODI, 차이나 머니, 투자 확대 방안

### I. 서론

현재 우리경제는 투자 감소, 생산성 정체 및 인구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다. 올 초 한국은행은 2015-201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 발표함으로써,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한 실제 경제성장률이 추산치보다 평균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 경제의 3%대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이를 해결하기

---

\* 한남대학교 중국경제통상학과 초빙교수, 제1저자, E-Mail: smaggimra@hotmail.com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교신저자, E-Mail : fudanjin@naver.com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시키는 것이다.

UNCTAD(2015)에 따르면, 지속적인 투자 자유화와 진흥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호재로 작용하여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조 5천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정부가 FDI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로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인천, 부산, 광양만 등에 ‘경제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힘썼다. 그 결과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09.0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지역별 투자액 비율은 미국 26.2%, EU 11.9%, 중국 9.5%, 일본 8.0%, 기타 44.4%로 나타났다.

지리적인 접근성과 경제 의존도<sup>1)</sup> 및 세계 경제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15년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홍콩, 싱가포르 포함)자본을 50억 달러 이상 유치한다는 목표를 발표, 이를 위하여 중화권 투자 유치를 패션, 식품 등으로 다변화시키고, 중국 특화 클러스터 개발 중점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 규모는 5억4887만 달러로 2014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1,231억 1986만 달러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 2015)

한국 경제의 침체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중 FTA 체결로 양국은 13억 5천만 명의 거대시장과 GDP 11조 달러의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對韓직접투자 특징을 분석하여 중국의 투자유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한·중 양국이 상호간 win-win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와 중국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對韓투자에 관한 투자 발전을 시기별로 나눠 살펴보고 한국의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통계’를 사용하여 투자 산업별, 업종별로 세분화 하여 중국의 對韓투자 현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중국의 對韓투자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對韓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2015)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으로 2014년 수출액 145,288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 25.4% 차지, 수입액은 90,082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 비중 17.1% 차지하며 수출입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 II. 선행연구 검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진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중국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 관련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와 관련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중국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김태식(2008)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으로의 직접투자는 어떤 형태인지 설명하였다. 이학노·김미정(2011)은 중국자본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인책이 사실상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sup>2)</sup> 徐永輝(2008)<sup>3)</sup>과 김태식(2008)<sup>4)</sup>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동기 가운데, 시장개척의 목적 뿐만 아니라,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한 M&A방식을 통한 투자 진출이 한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국투자기업의 특징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김소미(2008)와 최의현·張娜(2011) 두 편으로, 김소미(2008)<sup>5)</sup>는 지리학적 입장에서 중국투자기업의 입지 요건을 분석하였고, 최의현·張娜(2011)<sup>6)</sup>는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특징과 애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 결정요인 및 중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입 형태 등에 관한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신광하·윤성환·박명찬, 2009; 송소위·김길성, 2012; 이대퇴·김성순, 2011). 이대퇴, 김성순(2011)은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對한국 FDI 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독투자 진입방식이 합작투자 진입방식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고, 모기업의 국제화 경험과 인적자원 우위, 현지 자회사의 마케팅 능력과 재무 능력 등 기업내부 요인은 對한국 단독투자기업과 합작투자기업 성과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적

- 
- 2) 이학노·김미정, “중국자본의 유치환경과 투자유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4호, 한국관세학회, 2011, pp. 455~477.
  - 3) 徐永輝,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향후 전망”, CHINA 연구 제5집, 부산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8, pp. 251~276.
  - 4) 김태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 분석-대 한국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제1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08, pp. 1~26.
  - 5) 김소미, “중국기업의 대 한국 투자 특성”, 지리학논총 제52호,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08, pp. 1~16.
  - 6) 최의현·張娜,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특징과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13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1, pp. 35~60.

요인에서는 현지국 국가위험과 같은 불확실성 및 현지시장수요 등 변수는 對한국 해외직접투자 전체 표본기업과 단독투자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며, 문화적 차이 변수만 합작투자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셋째,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라는 관점에서 M&A와 전략적 제휴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특정 M&A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익수·한병섭·김병구, 2008; 백권호, 2008; 백권호·조정일·우진훈, 2009; 洪琳·정강원, 2010). 전략적 제휴 연구로 유일하게 조대우(2008)는 중국기업 또는 일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한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휴 파트너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였는데, 검증결과 중국파트너와의 신뢰관계는 현지 시장 내 경쟁변수, 시장성장성변수 그리고 의사소통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sup>8)</sup>

넷째, 중국자본의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적 연구도 최근 진행되고 있다(박문서·김미정, 2012). 박문서, 김미정(2012)는 중국자본 유치 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전제를 분석하면서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유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9)</sup>

중국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대한(對韓)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편으로,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金明玉(2012)<sup>10)</sup>와 何喜有(2015)<sup>11)</sup>는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면서,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만한 투자동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全优(2011)<sup>12)</sup>는 중국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과 전략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중국은 경제체제 모델과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시키는 중대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선진기술과 우수한 관리 능력,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 등의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중국기업의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시장이

7) 이대희·김성순, “중국기업의 대 한국 FDI진입전략 및 성과인식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26집 4호, 한국경영사학회, 2011, pp. 187~208.

8) 조대우, “한국 벤처기업의 일본 및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선택-국별 파트너와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08, pp. 295~325.

9) 박문서·김미정,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중국자본 유치의 전제조건”, 통상정보연구 제14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 171~195.

10) 金明玉, “中國對韓直接投資的發展狀況及對策研究”, 沈陽示范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36卷第4期, 沈陽示范大學, 2012, pp. 41~43.

11) 何喜有, “中國對韓國直接投資的結構性分析及其原因分析”, 韓國研究論叢 第29卷 第1期, 夏旦大學韓國研究中心, 2015, pp. 223~237.

12) 全优, “中國企業對韓直接投資現狀與戰略”, 戰略決策研究 第2卷 第5期, 廣東外語外貿大學, 2011, pp. 41~51.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대부분의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며 시장 잠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 진출시 중국기업은 목표 시장 선택, 투자 지역 선택, 투자 산업 선택 등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한중 양국의 투자분야에서의 소통 증진을 위해 중국자본의 대 한국 직접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투자 유치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대한 투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대한 투자 발전과정을 시기적으로 분석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중국의 對韓투자에 관하여 투자 산업별, 업종별 동향을 통하여 보다 심도 깊은 대한 투자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Ⅲ.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 및 특징 분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10년 동안 내·외적인 요인으로 빠르게 상승하였고, 최근 ‘一帶一路’<sup>13)</sup> 전략 추진 및 투자지 다원화와 민영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UNCTAD의 2015년 보고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1,160억 달러로 2013년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sup>14)</sup>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표 2>를 살펴보면, 2007-2014년 동안 평균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의 대다수는 중국 홍콩지역으로 유입되어 평균 83%이상의 투자율을 나타냈다.<sup>15)</sup>

13)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 순방 중 “絲綢之路經濟帶”(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世紀海上絲綢之路”(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처음 언급,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벨트(帶)와 해상 실크로드의 로드(路)를 합쳐 일대일로라고 부른다. 같은해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이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선언, 2015년 국가의 중점 추진계획으로 발표하였다.

14)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월까지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 비금융투자는 454.1억 달러로 전년대비 47.4%증가, 그 중 주식과 채무 등의 투자는 384.1억 달러로 84.6%, 수익 재투자 70억 달러로 15.4%이며 5월말까지 중국 비금융해외투자 누적액은 7,267억 달러이었다. <http://china.huanqiu.com/News/mofcom/2015-06/6738739.html> (검색일: 2015. 11. 01)

15) 중국 통계국 통계연감(2015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은 홍콩

&lt;표 1&gt; 2013-2014년 상위20개 해외직접투자국

(단위: 십억 달러)

순위	2014 투자액	2013 투자액	순위	2014 투자액	2013 투자액
1. 미국	337	328(1)	11. 아일랜드	32	24(16)
2. 홍콩	143	81(5)	12. 스페인	31	28(14)
3. 중국	116	101(3)	13. 대한민국	31	28(13)
4. 일본	114	136(2)	14. 이탈리아	23	31(9)
5. 독일	112	30(10)	15. 노르웨이	19	21(17)
6. 러시아	56	87(4)	16. 스위스	17	10(25)
7. 캐나다	53	51(7)	17. 말레이시아	16	14(22)
8. 프랑스	43	25(15)	18. 쿠웨이트	13	17(19)
9. 네덜란드	41	57(6)	19. 칠레	13	8(29)
10. 싱가포르	41	29(12)	20. 대만	13	14(21)

주: ( )의 수치는 2013년도 순위.

외국인직접투자 집계에서 카리브해 연안의 역외투자허브는 제외함.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pp. 3. 참고하여 재구성.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투자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케이만군도, 버진 아일랜드군도, 바하마 등 세계적인 조세회피 지역이었다.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세금회피 및 투자의 편리성, 생산과 투자 등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 피난처는 해외투자의 환승지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자금의 대부분은 선진국과 지역에 유입된다.<sup>16)</sup>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방식은 주로 국제 인수합병(M&A)으로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은 총 595건, 실제 거래규모는 569억 달러이고 그 중 직접투자는 324.8억 달러로 이는 인수합병거래에서 57.1%를 차지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해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3.09%), 싱가포르(2.68%), 인도네시아(2.06%), 베트남(0.63%), 마카오(0.60%), 일본(0.57%), 한국(0.35%)순이었으며, 2014년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홍콩(83.98%), 싱가포르(3.31%), 인도네시아(1.49%), 마카오(0.70%), 한국(0.64%), 일본(0.46%) 순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6) 王碧珺, “被誤讀的官方數據-揭示真實的中國對外直接投資模式”, 國際經濟評論 第1期, 北京大學國家發展研究所, 2013, pp. 1~15.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한 이유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sup>17)</sup>과 중국 정부의 非공유제 기업에 대한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전략이 확대되면서 초기의 국유 기업 주도의 투자가 민간기업과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 지역별 중국해외직접투자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2007	2010	2013	2014	2007	2010	2013	2014
지역	ODI규모(stock기준)				ODI규모(flow기준)			
아시아	792.18	2281.46	4474.08	6009.66	165.93	448.90	756.04	849.88
아프리카	44.62	130.62	261.86	323.50	15.74	21.12	33.71	32.02
유럽	44.59	157.10	531.62	693.99	15.40	67.60	59.49	108.38
라틴아메리카	247.01	438.76	860.96	1061.11	49.02	105.38	143.59	105.47
북미	32.41	78.29	286.10	479.51	11.26	26.21	49.01	92.08
오세아니아	18.30	86.07	190.17	258.64	7.70	18.89	36.60	43.37
조세피난처	234.94	405.01	762.27	935.57	45.17	96.16	124.75	87.62
지역	비중(%)				비중(%)			
아시아	67.18	71.92	67.74	68.09	62.60	65.24	70.11	69.03
아프리카	3.78	4.11	3.96	3.67	5.94	3.07	3.13	2.60
유럽	3.78	4.95	8.05	7.87	5.81	9.82	5.52	8.80
라틴아메리카	20.95	13.83	13.04	12.02	18.50	15.31	13.31	8.57
북미	2.75	2.47	4.33	5.43	4.25	3.81	4.54	7.48
오세아니아	1.55	2.71	2.88	2.93	2.91	2.75	3.39	3.52
조세피난처	19.93	12.77	11.54	10.60	17.04	13.97	11.57	7.12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각년판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중국은 국유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지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를 시행하고 있다.

17) 혼합소유제는 2013년 중국공산당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 방안으로 발표, 국유지분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시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민영화 과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politics.people.com.cn/n/2015/0918/c1001-27601433.html> 참조.

〈표 3〉 2014년 국유기업의 해외 투자 주요 사례

기업명	인수대상	프로젝트 내용
中國電力建設集團有限公司	TLT (독일)	투자규모: -인수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 최대 발전소 송풍기 공급 기업으로 부상
東風汽車	Citroen (프랑스)	투자규모: 9억 유로 규모 증자 참여 -프랑스 정부와 함께 9억 유로 규모의 증자참여 -중국 자동차 기업의 해외대형자동차 그룹에 최대 투자
中國五礦集團公司	Las Bambas (페루)	투자규모: 58.5억 달러 -중국 광산업 역사상 최대의 해외 인수
State Grid	CDP Reti (이탈리아)	투자규모: 21억 유로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수송망 CDP Reti의 지분 35%매입
中糧集團有限公司	Nidera (네덜란드)	투자규모: 지분51% 취득 -중국의 식량과 식용유 사업의 최대 규모의 국제합병
中國鐵建股份有限公司	나이지리아	투자규모: 119.7억 달러 -나이지리아 연해철로라인 공사 수주 -중국이 해외에 수주한 철도 건설 공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자료: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 작성.

이미 작년 6월 중국의 국유은행 최초로 교통은행(交通銀行)이 혼합소유제 개혁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7월 중국석유화학공(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 Sinopec)은 혼합소유제 개혁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자사의 소매사업부분의 약 30%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국무원 지침에 따라 현재 국가개발투자공사(國家開發投資公司), 중량그룹(中糧集團), 중국의약그룹(中國醫藥集團總公司), 신흥제화그룹(新興際華集團有限公司), 중국건축재료그룹(中國建築材料集團公司) 등이 혼합소유제 시범대상에 포함돼 민영화 작업을 준비 중이다. ‘혼합 소유제’ 시행으로 이를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된 것이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주체가 기존의 국유기업위주에서 민영기업으로 점차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2014년 민영기업의 해외 투자 주요 사례

기업명	인수대상	프로젝트 내용
聯想 lenovo	Motorola Inc. (미국) IBM (미국)	투자규모: 29억1000 달러 -모토로라의 휴대폰 부문 인수 -애플,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 투자규모: 23억 달러 -IBM의 PC서버부문 인수 -저가 서버 시장점유율 글로벌 3위 도약 전망
中國三胞集團有限公司	House of Fraser (스코틀랜드)	투자규모: 4.8억 파운드 -중국 소매업 분야 해외 최대 투자
弘毅投資	Pizza Express (영국)	투자규모: 9억 파운드 -5년간 유럽외식업계에서 이뤄진 거래 중 최대 규모 -영국과 중국에 외식사업 확장 예정
華爲投資控股有限公司	Neul (영국)	투자규모: 2천500만 달러 -사물간 인터넷 센서칩을 만드는 Neul인수로 중국의 사물간 인터넷 사업 본격 진출 의미
安邦財產保險股份有限公司	Waldorf Astoria Hotel (미국)	투자규모: 19억5000 달러 -미국호텔업계 인수사상 최고가 -추가 자금 투입해 대규모 리모델링 진행 -중국 보험회사의 미국 부동산 진출
錦江國際集	Louvre Hotel Group (독일)	투자규모: 12억 유로 -47개국 1100여개 이상의 호텔 보유한 루브르 호텔 인수로 글로벌 호텔로 도약

자료: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 작성.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국 국유 기업과 민영기업의 투자패턴에도 영향을 주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존의 개도국 및 선진국의 천연자원 중심 투자에서 선진국의 금융, 기술, 유통, 광산, TMT(첨단기술·미디어·통신), 부동산, 호텔 그리고 외식업계 까지 투자 대상국과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3>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 동평자동차(東風汽車)가 프랑스 시트로엥(Citroen)자동차 그룹에 9억 유로 규모 투자, 안방보험(安邦財產保險股份有限公司)이 미국 호텔업계 인수사상 최고금액인 19억 5천 달러를 투자하여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Waldorf Astoria)인수, 화웨이 투자회사(華爲投資控股有限公司)가 사물간 인터넷 센서칩을 만드는 영국의 Neul 인수한 사례에

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세계 M&A시장의 큰 손으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중국 자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IV. 중국의 對韓투자 현황 및 특징 분석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무역에 있어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동반자로서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며<sup>18)</sup>, 한국도 중국의 10대 무역 동반자로 성장하였다.<sup>19)</sup> 우선 對韓투자를 위한 양국의 변화를 살펴본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통계’를 통하여 중국의 對韓투자에 관하여 투자 발전과정, 투자 산업분포 및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고 중국의 對韓투자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對韓투자 발전 현황

첫 번째 단계는 중국의 對韓투자 초기단계(1990-1998년)로 중국의 투자는 미비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중국은 덩소핑의 ‘남순강화’<sup>20)</sup>와 1993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으로 경제개혁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각급 정부는 외자유치에 적극적이었다. 더불어 1992년 10월 중앙 14차 보고에서 중국정부는 중국 기업의 국제시장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고, 1997년 장쩌민은 중국의 대외개방의 두 가지 방침을 “인진라이”(引進來: 해외자본 유치)와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임을 천명하면서, 이 두 개의 방침을 상호 촉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기업은 현대기업체도로 개혁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전문

18) 수출에 있어 2003년 35,110백 만 달러에서 2014년 145,288백 만 달러로 전체 수출비중에서 25.4%로 1위, 수입에 있어 2007년 63,028백 만 달러에서 2014년 90,082백 만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에서 17.1%차지, 수출입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료 참조.

19)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2905.6억 달러로 5.95%증가하였고,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1003.56억 달러, 수입은 1902.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7%와 3.9%증가하여 2014년 중국의 10대 무역국에서 6위를 차지하였다.

20) 1992년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덩소핑은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남방의 경제특구를 순찰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담화로, 초기에는 보수적인 베이징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나, 지방으로부터 호응을 받아 1992년 10월 개최된 <제 14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 수록되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천명하는 기초가 되었다.

무역회사, 국제신탁회사, 국제경제기술합작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기업만이 해외 경영권을 지닐 수 있었다.<sup>21)</sup> 또한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기술우위를 지니고 있던 국유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면서 이 시기 중국의 對韓 투자는 제한적이며 투자 주체가 단일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중국의 투자는 1990년 투자건수는 1개, 투자금액은 10만 달러였으며,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투자건수는 6건으로 투자금액은 105만6000달러였다. 이후 투자 건수와 금액은 소폭 상승하다가 1998년 투자건수 96건을 기록하며 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투자 건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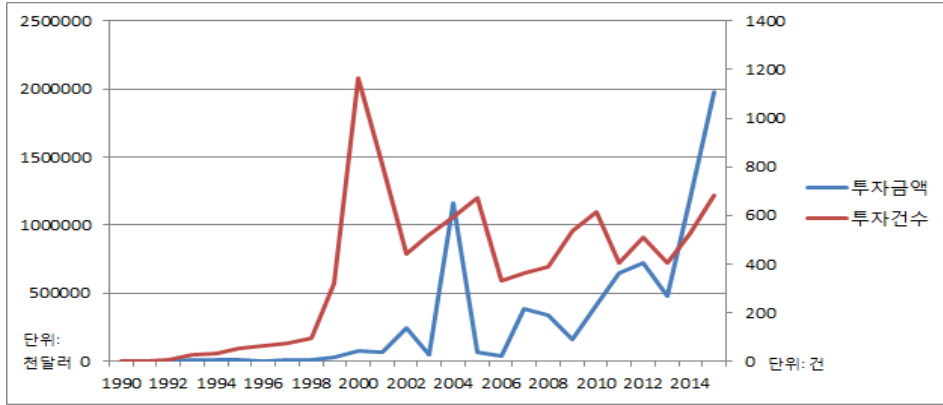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는 중국의 투자가 빠르게 발전했던 시기로(1999-2005년) 이 시기 중국의 ‘저우추취’ 전략 강화<sup>22)</sup>와 더불어 WTO가입 이후 중국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의 탐색 등 원인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WTO가입 이후 중국 정부는 해외 무역경영권을 민영기업에게도 개방하여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더불어 중국 기업은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탈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시작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외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하여 2003년 8월 당시 재정부에서는 <인천 경제자유무역구역>, 10월 <부산진해 경제자유무역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무역구역> 등을 지정하며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에 힘썼다.<sup>23)</sup> 그 결과 중국의 對韓 투자는 1999년 323건, 투자금액은 2658만 5000 달러로 소액 투자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834만 4000 달러보다 3배 증가한 수치이고, 2000년 투자건수는 1,165건으로 이는 1990-2015년까지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건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4년 투자금액은 11억6476만 달러로 이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sup>24)</sup>

21) 何喜有, *op. cit.*, p. 234.

22) 2000년 초 장쩌민은 “조우추취” 전략은 중국경제와 전면적인 현대화건설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중공15차 5중 전회에서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个五計劃的建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10.5계획에 관한 건의)에서 “조우추취”를 공개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서부대개발 전략, 도시화전략, 인재전략 등을 ‘4대 新전략’으로 채택, 2001년 3월 중국정부는 전인대9기4차회에서 <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个五計劃綱要>(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 계획요강)에 ‘조우추취’ 전략을 정식으로 명시하고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내용 기재, 2004년 국무부와 외교부는 <對外投資國別產業導向目錄 (一)>(국가별 대외투자 산업지도목록)를 발표하여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05년 <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个五計劃綱要>(국민경제와 사회발전11.5계획요강)에서 기업의 해외투자와 다국적 경영, 신용대출 확대, 외환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23) 경제자유무역구역지정으로 외국인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그 뒤 2년간 50%면제, 관세 3년간 면제, 1만 달러 한도 내 외환 자유화 거래 허용, 부지 조성권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fez.go.kr/kr/incheon-fez-overview.jsp> 참조.(검색일: 2015. 10. 28).

<그림 1> 1990-2015년 중국의 대한 투자 발전 추이



주: 신고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연도별 국가별/산업별 통계 자료 정리.

마지막 단계는 중국의 투자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2006-현재)하는 단계로 중국 기업의 국제화 경영에 대한 의지 강화 및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정책이 결합되어 對韓투자가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기존의 ‘양적 경제성장’에서 ‘질적 경제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동시에 내수확대를 통하여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기업도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高부가가치 생산을 강화하고자 해외투자를 통하여 선진 기술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 시기 우리 정부도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율을 늘리기 위하여 2010년 5월 당시 지식경제부와 코트라(KOTRA)가 ‘차이나데스크’(china desk)를 설치<sup>25)</sup>, 같은 해 8월 코트라 ‘차이나 플러스(C+)프로젝트’계획<sup>26)</sup> 발표, 2011년 3월 지식경제부는 주한 중국 투자기업 협의회(차이나클럽) 발족식 개최<sup>27)</sup>, 2012년 5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한국투자정책과

24) 중국이 이 시기 한국에 투자했던 상황을 보면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2004년11월), BOE의 하이디스 투자(2002년 12월), 상하이 산다의 엑토즈 소프트사 인수(2004년 12월), SinoChem의 인천정유 인수(2004년)처럼, 중국의<국가별 대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가이드라인(자동차,IT설비, 화공 등)에서 움직였다. 광복선 외, 중국 경제론, 박영사, 2015, p. 459.

25) 차이나데스크는 코트라 상하이KBC와 서울 본사 Invest Korea에 각각 설치되어, 중국 자본 투자 유치 업무 전담, 특히 양국 기업, 투자 중개기관,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정부 공유 등 투자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http://www.fimprc.gov.cn/ce/cekor/chn/sgxx/t692980.htm> (검색일: 2015. 10. 28)

26) 중국 투자를 2010년 5억 달러, 2012년 10억 달러, 2015년 2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계획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10017018> (검색일: 2015. 10. 28)

27)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간 네트워크 장을 제공, 투자관

사업 설명회' 개최<sup>28</sup>), 2014년 7월 '한중경제통상협력포럼' 개최<sup>29</sup>) 등 매년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 對韓투자 산업별 현황 분석

對韓투자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1998년 이후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점차 감소 추세이고, 농·축·수산·광산업과 전기·가스·수도·건설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편중되어 1999년 이후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 산업분포도 단계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투자 초기 단계였던 1990-1998년 시기에 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7%에서 1998년 42%로 증가, 서비스업은 1992년 83%에서 1998년 53%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투자에 있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건수는 17건을 기록한 199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51건이었다. 농·축·수산·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기·가스·수도·건설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1993년 1건을 시작으로 미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단계(1999-2005년)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투자건수는 1,083건으로 257건을 기록한 1999년 보다 4배 증가하였으며, 도소매 유통업 분야에서 1,009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제조업에 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58건, 2000년 73건, 2003년 44건, 2005년 45건으로 매년 40건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농·축·수산·광산업과 전기·가스·수도·건설업 분야에 대한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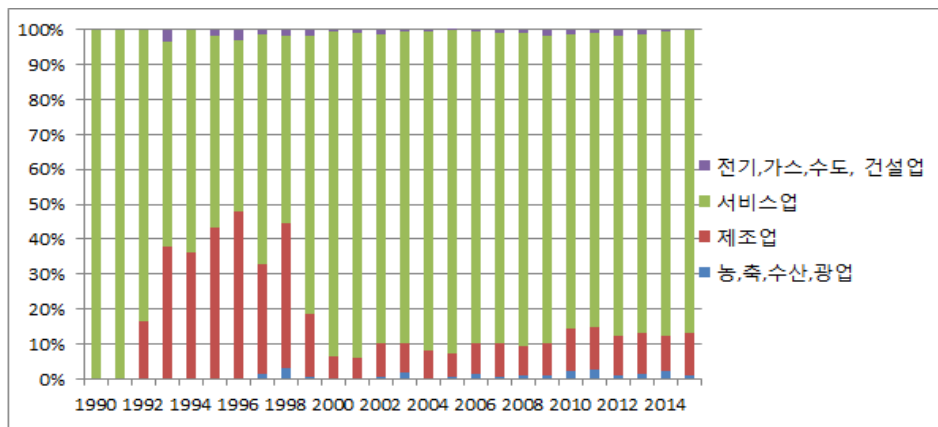
런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협의체로 투자지원은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차이나데스크'를 통해 이뤄진다. [http://news.xinhuanet.com/world/2011-03/22/c\\_13792016.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11-03/22/c_13792016.htm) (검색일: 2015. 10. 29)

28) 지식경제부, 코트라 와 중국 상무부 투자추진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설명회에서 양국은 <양국투자협력사업계획추진>에 서명하고 양국간의 투자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綠地集團(Green land)에서 제주도예 4억 달러 투자계획과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건강의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finance.sina.com.cn/roll/20120601/103812200827.shtml> (검색일: 2015. 10. 29)

29) 시진핑 방한을 맞춰 2014년 7월4일 개최, 한중 수교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포럼으로 경제인 행사에 양국 정상도 함께 참석한 것도 양국 수교 이후 처음, 이 포럼에서 '한중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성명서에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http://blog.president.go.kr/?p=24463> (검색일: 2015. 10. 29)

자는 여전히 미비하여 이들이 1999-2005년 전체 투자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림 2> 1990-2015년 중국 대한 투자건수 산업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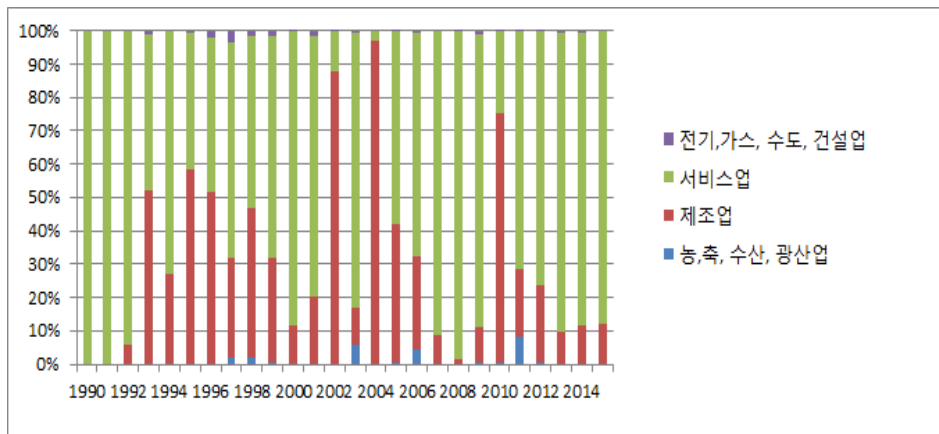
주: 신고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년도별 국가별/산업별 통계자료 재구성.

세 번째 단계(2006-현재까지),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투자 건수가 감소한 시기로 서비스업 투자는 2015년 588건인 가장 높은 수치로 이는 서비스업 투자건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5년 620건 보다 낮다. 그러나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89%에서 2015년 86%로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006년 29건, 2008년 32건, 2010년 75건, 2012년 58건, 2014년 54건, 2015년 8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산업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9%에서 2015년 12%로 증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 있어 산업분포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림 2>와 <그림 3>을 살펴보면, 2002년 전체 투자 건수는 440건, 투자금액은 2억4769만 달러로, 이 중 제조업 투자 건수는 43건, 서비스업 투자 건수는 388건으로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 88%이다. 그러나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2억1711만 달러, 서비스업은 2924만 달러로 각각 88%, 12%를 차지하여 투자건수에 있어 서비스업이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였지만, 투자금액으로 보면 제조업에 집중투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금액 11억 6476만 달러를 기록했던 2004년 투자건수는 596건으로, 그 중 제조업 47건에 투자된 금액은 11억 2906만 달러인 반면 서비스업 543건에 투자된 금액은 3517만 달러로 전체 투자건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로

압도적이었으나,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 97%로 투자금액 최고치를 차지하였다.

<그림 3> 1990-2015년 중국 대한 투자금액 산업분포도



주: 신고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년도별 국가별/산업별 통계자료 재구성.

### 3. 對韓투자 업종별 현황 분석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2014년 도·소매(유통)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2015년 9.0%로 2배에 가까운 증가치를 나타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2014년 0.4%에 불과하던 금융·보험 분야의 투자가 2015년 60.6%로 증가한 것이다. <표 5 참조>

금융위원회의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중국계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약 2조원 이상을 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2월 안방보험(安邦保險集團)은 동양생명의 지분 63%를 1조1,319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6월 금융위가 동양생명의 대주주를 안방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중국 자본은 금융시장에서도 큰 손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오락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진출은 확연히 증가하여, 2014년 1.1%에 불과하던 투자가 2015년 4.36%로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업체 텡쉰(騰訊, Tencent)는 2012년 카카오에 720억 원을(자본13.3%) 투자하여 2대 주주가 되었고, 다음·카카오가 합병 이후 이들 지분의 9.9%를 보유, 2014년 CJ게임즈의 지분 28%를 보유함으로써 3대 주주로 등극하였고, 국내 10여개 게임업체에 150억 원을 투자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온라인 게임 공급을 받아 서비스하던 텅윈은 시가총액 125조원(2015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최대 게임사가 되었다. <표 6 참조>

<표 5> 중국의 대한 투자 세부 업종별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414,178	650,853	726,952	481,186	1,189,362	1,978,346
농·축·수산·광업	1,763	54,193	4,004	577	3,311	1,144
제조업	310,414	132,619	167,680	45,211	135,694	234,929
서비스업	101,145	463,062	552,934	432,902	1,044,367	1,742,090
도·소매(유통)	23,255	35,834	32,986	38,363	51,110	178,902
음식·숙박	8,584	103,421	127,901	93,171	105,712	25,294
운수·창고(물류)	2,900	7,621	19,737	38,740	10,143	10,604
통신	0	0	88	0	1,092	2,882
금융·보험	146	0	75,132	0	4,200	1,200,221
부동산·임대	4,749	289,069	283,111	214,792	833,818	165,601
비즈니스서비스업	9,788	20,984	11,806	43,558	25,925	71,647
문화·오락	50,376	6,037	1,762	471	11,891	86,196
공공·기타서비스	1,348	95	411	3,808	475	183

주: 신고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년도별 국가별/산업별 통계자료 정리.

이처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 부동산 투자 일변도를 보여주던 중국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sup>30)</sup>

#### 4. 對韓투자 특징 분석

앞서 중국의 對韓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한투자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30) 2014년 이후 중국에서 투자받은 한국 기업들의 사업 분야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래픽, IoT, 로봇, 비콘,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투자를 받았으며 키이스트(엔터테인먼트)와 테바글로벌(유통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차세대 유망기술로 꼽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업체들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2614150066019&outlink=1> (검색일:2015. 11. 12)



우선, 중국의 對韓투자 규모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투자초기 단계에 중국은 시장경제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존 계획경제체제와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 과도기적 시기였기 때문에 투자 규모와 투자 건수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은 IMF이전에 외자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7년 이전까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두 번째 단계(1999-2005년)에서는 양국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투자 규모와 투자 건수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었는데 그 결과 2000년 1,165건이라는 투자 건수 최고치를 기록, 2004년 11억 6476만 달러로 이 기간 투자 금액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對韓투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단계(2006-현재)에서는 투자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투자금액은 2014년 11억 8493만 달러, 2015년 19억 7834.6만 달러로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 미국 직접투자가 3370억 달러(2014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對韓 투자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중국의 대한국 투자 편중화 현상이다. 투자 건수에 있어 서비스업이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금액으로 보면 제조업에 집중 투자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 산업 분포와 업종분포를 살펴보면, 1999년 이후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80%로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타 산업으로의 투자유치 확산 효과가 저조하였다. 또한, 중국의 對韓 투자 프로젝트별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제조업보다는 무역, 물류, 관광, 기술 서비스 등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가 많았다. 최근 몇 년간 의료, IT,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한국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술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에 주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지만, 투자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M&A형 투자의 증가세 이다. 중국의 ODI정책 추진 목적은 선진적인 기술 도입 및 자국기업의 글로벌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對韓 투자 역시 M&A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중국기업이 생산시설의 자국이전, 기술유입 등에만 관심이 있다는 등의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될 수 있다.<sup>31)</sup> 따라서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1)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 이후 기술유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산다의 액토즈소프트 인수 목적이 전략적 협력과 관계없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개발 역량을 빼앗기 위함이라는 주장으로 2012년 액토즈소프트가 투자금 1,000억 원을 회수하는 사례 등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표 6〉 2014-2015년 중국기업의 한국 기업 투자 주요 사례

기업명	투자 형태	투자 년도	프로젝트 내용
綠地集團 녹지그룹 Green land	Green field	2014	투자규모: 약10억 달러 -중국 부동산 분야 랭킹 1위 기업으로, 제주도 랜드마크 호텔 건설사업 추진
藍鼎集團 남정그룹 Landing Investment Group	Green field	2014	투자규모: 1.5억 달러 -켄팅싱가포르와 협력하여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진행 -중화권(싱가포르)경유로 중국 본토자본 우회 투자 유형
正泰集團 정태그룹 Chint group	M&A	2014	투자규모: 4,200만 달러 -중국내 4대 태양광 기업으로, 한국법인(주)아스트로너지솔라 코리아 설립 -한국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권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 성공
朗姿股份有限 公司 랑시유한공사 Lancy	M&A	2014	투자규모: 320억 원 -15.26%의 지분 보유로 아가방앤컴퍼니 최대주주(최대주주 26.6%보유한 랑시 코리아, 2015년 11월 현재) -600여개 매장 운영 중인 여성복 패션전문업체, 영·유아용품 사업확장 위해 인수
騰訊 팅신 Tencent	M&A	2014	투자규모: 5,100억 원 -지분 28%보유하여 최대주주 등극 -싱가포르 경유 투자, 투자를 통하여 게임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획득 및 기업 경쟁력 강화
搜狐 소호 SOHO.com	M&A	2014	투자규모: 150억 원 -키이스트 지분 6.4%보유 2대 주주 -투자를 통해 중국내 키이스트의 온라인 독점 파트너
安邦保險集團 안방보험회사 Anbang Insurance Group	M&A	2015	투자규모: 1조1,319억 원 -지분 63% 보유 최대주주 -국내 대형금융사 인수 첫 사례
DMG Dynamic Marketing Group	M&A	2015	투자규모: 250억 원 -국내 엔터테인먼트 상장사에 대한 중국 기업의 최대 규모 투자

자료: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 작성.

## V. 결론: 對韓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그림 4> 對韓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본 연구의 전략적 방안



### 1. 산업별/투자자별 수요맞춤형 접근전략 수립

중국의 對韓투자에 대해 관심분야별로 양국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투자자별 수요맞춤형으로 투자애로사항을 발굴 및 해소하여야 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중국의 관광·부동산 개발, 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중국인 전용 헬스케어센터 프로젝트를 선 제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2014)에 따르면, 작년 국내 진료 외국인환자는 26만 6,501명(전년 대비 34.7% 증가)을 기록, 그 중 중국인 환자 7만 9,481명으로 29.8%를 차지(전년 대비 41.7% 증가, 1위)하였고, 주방문병원은 성형외과·내과·피부과로 나타났다.<sup>32)</sup> 이러한 중국의 대규모 의료관광 투자수요에 대해 사업수요를 선별하고, 시범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격 진료나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첨단·환경산업분야에서는 중국의 신기술 투자수요에 맞춰 기술협력의제를 발굴하고, 먼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은 중국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오염심화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12.5 규획 중국 7대 전략산업 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따라서 환경산업에서 한·중간 에너지 저감기술 및 미래 신에너지 공동개발, 관련 기술 상호인증제 도입, 기술 국제표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의 경우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및 한미/한-EU FTA 추진 등 한국과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를 활용한 우회투자지로서의 한국 입지를 활용해야 한다. 즉, 중국의 반덤핑 피제조업종의 한국으로의 우회투자 유치하고, 구미시장 관세감면 혹은 비관세장벽 극복이 가능한 한국투자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 EU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한중FTA를 한국의 FTA 네트워크와 연계하려는 중국과 제3국 기업(미국, 일본, EU 등)의 對韓투자유치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해 한중간 관세인하와 비관세분야<sup>33)</sup> 장벽 완화가 예상되는 가공식품,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철강 등의 對中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려는 중국 및 일본, 미국, EU 등 제3국 기업의 對韓투자유치 유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2. 상호간 우호적 분위기 조성

우선 중국자본의 對韓투자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중국자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보다 긍정적, 개방적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중국자본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부처·지자체 등 정부기관 간 원활한 의견조율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를 통해 對韓투자의 불확실성 낮춤으로써, 투자가 한국에서

32) 보건복지부,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 2015. 5.

33) 현재 협상쟁점중인 비관세 장벽은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TBT(기술장벽협정) 등 이다.

활발하게 투자하고 사업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자본의 국내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는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 등 긍정적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해 중국자본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면허 등 시장진입을 결정짓는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해외자본참여가 국내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3. 전략적 협력모델 발굴

한국이 FTA선진국으로서 무역장벽 우회에 최적화되어 있어 중국기업 제품·서비스에 ‘Korea 브랜드’ 부가로 이미지·부가가치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노하우·브랜드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자국시장을 타겟팅 하는 세일즈 모델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중국 디쌍(迪尙)그룹과 한국 AVISTA의 전략적 제휴<sup>34)</sup>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한·중간 사상 최초로 중국 민영기업의 국내 우량 상장사에 대한 투자인수 사례로 2015년 5월 산업통상부가 추진한 중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차이나위크 행사에서 한중 기업 협력 성공 사례로 꼽힌 바 있다.

<표 7> 전략적 협력모델 발굴(제안)

전략적 협력 모델		중국(혹은 제3국)기업이 한국기업에 투자를 한 후,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중국 내수시장(또는 글로벌 시장 개척)하는 것을 의미
양국 합작 기업 간 역할	중국	자본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현지 판매 및 유통담당
	한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파워 및 기획 담당

### 4.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모색

우선, 한중 정부 간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미래도시(전남 무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구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도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 인력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34) 2012년, 중국 디쌍(迪尙)그룹은 AVISTA 지분 36.9%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었고, 중국(디쌍그룹)의 자금과 한국(아비스타)의 브랜드, 기술, 개발 역량을 결합해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친트 쏘라, 장자도그룹, 디쌍그룹 등이 중국기업의 투자성공사례로 꼽혔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당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차원 사전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합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서 양국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단지 및 산업 혁신 협력을 강화하여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해외시장에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신흥시장 진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투자협력위원회’, ‘한중경제공동위원회’등을 활용하기로 하는 등 안정적으로 한중 양국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 및 발전시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안(무역투자진흥회의), 식품·화장품 등 투자유치 유망업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이어 경제자유무역의 외투전진기지화에 중점을 둔 3번째 대책이다. 특히 FTA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투자는 증가하였으며, 투자 분야도 당초 기대했던 대로 패션, 영화 게임 등 FTA 유망업종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정부의 FTA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형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중 FTA로 중국기업의 對韓투자가 관심 받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對韓투자에 관한 직접투자에 연구의 중점을 두어 산업 분포별, 업종별 동향 및 최근 중국의 對韓 M&A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어 정보 제공적 목적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적 방안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중국계 투자유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실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태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 분석 - 대 한국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08. 6.
- 김소미, “중국기업의 대 한국 투자 특성”, 지리학논총 제52호,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08. 9.
- 김익수·한병섭·김병구, “M&A방식을 통한 중국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한국무역학회, 2008. 4.
- 곽복선·김동하·서창배·김형근·장정재, 중국경제론, 박영사, 201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해외 M&A현황 및 문제점” 제17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북경사무소, 2014. 7.
- 문철주·김용준·박정동·문철우, “한·중 양국간의 무역·경영 연구에 관한 문헌적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3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5.
- 박석호, “중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안”, 무역통상학회 제10권, 한국무역통상학회, 2010. 9.
- 백권호, “중국기업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사례분석”, 중국과 중국학 제7권,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08. 2.
- 보건복지부,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 2015. 5.
- 산업통상자원부, 각년도별 통계자료.
- 서석홍, “해외인수합병을 통한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중국과 중국학 제7권,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08. 2.
- 신광하·윤성환·박명찬,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중국제조기업의 대 한국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국제지역학, 2009. 11.
- 徐永輝,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향후 전망”, CHINA 연구 제5집, 부산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8. 8.
- 송소위·김길성, “중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입형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설과 M&A를 중심으로”, 한국비즈니스리뷰 제5권,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2. 8.
- 유자영, 이지나, “중국의 대한투자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방안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6권, 한국무역통상학회, 2016. 3.
- 이대희·김성순, “중국기업의 대 한국 FDI진입전략 및 성과인식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26집, 한국경영사학회, 2011. 12.
- 이문형,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투자와 교역간의 상관관계”,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6.

- 이수행·정준규·김소라, “중국자본의 경기도 유입특성 및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3.
- 이영수·권순국, “FTA와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방안”,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8.
- 조대우, “한국 벤처기업의 일본 및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선택-국별 파트너와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국제지역학회, 2008. 11.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의 대한투자 매력과 시사점”, 2014. 7.
- 최의현·張娜,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특성과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13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1. 2.
-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동향분석”, 한국 수출입은행, 2015. 8.
- 洪琳·정강원, “중국 M&A의 실패사례에 관한 연구-상하이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M&A사례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리뷰 제1권, 공주대학교 KNU경영컨설팅 연구소, 2010. 2.
- 金明玉, “中國對韓直接投資的發展狀況及對策研究”, 沈陽示范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36卷, 沈陽示范大學, 2012. 8.
- 全优, “中國企業對韓直接投資現狀与戰略”, 戰略決策研究 第2卷, 廣東外語外貿大學, 2011. 9.
- 何喜有, “中國對韓直接投資的結構性分析及其原因分析”, 韓國研究論叢 第29卷, 夏旦大學韓國研究中心, 2015.
- 商務部, 對外投資國別產業導向目錄, 商務部, 2013.
- 商務部,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商務部, 2014.
- 王碧琚, “被誤讀的官方數據-揭示真實的中國對外直接投資模式”, 國際經濟評論第1期, 北京大學國家發展研究所, 2013. 2.
- 王永欽·杜巨瀾·王凱, “中國對外直接投資區位選擇的決定因素:制度、稅負和資源稟賦”, 經濟研究 第12期,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2014. 12.
- 王曉紅·李白杰·李耀輝, “改革開放30年中國對外直接投資的回顧与展望”, 國際貿易 第9期, 中國商務出版部, 2008. 9.
- 姚枝仲·李衆敏, “中國對外直接投資的發展趨勢与政策展望”, 國際經濟評論 第2期, 中國社會科學院世界經濟与政治研究所, 2011. 4.
- 岳世光, “我國企業對韓國直接投資的現狀分析”, 鄭州航空工業管理學院學報 (社會科學版) 第27卷, 鄭州航空工業管理學院, 2008. 10.
- 中國國家統計局, 主要國別 (地區) 分對外直接投資額, 統計局, 2015.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United Nations, 2015.



## ABSTRACT

### **Analysis of Chinese Oversea Direct Investment(ODI) and Methodology of Investment Stimulation in Korea**

Ja-Young YU · Ji-Na LEE

As for Korea, China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an advantageous geological accessibility and high economic dependenc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establish 5billion dollars' investment from Greater China (including Hong Kong and Singapore) and the government has put much effort into accommodating more Chinese investment by diversifying investment channels from Greater China. Under this major Chinese investment boom, it is crucial to conduct in-depth research on accommodation of Chinese investment and create a plan to establish Chinese capital investment that will benefit both the investing country and the countries receiving the investment.

Hence, the present study analyzed current trends in Chinese investment for the Korean market, focusing on the stimulation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greater investment from China.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various investment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vestors for the Korean market by researching investment development levels on different timelines and analyzing Chinese investment in Korea for a variety of industries. Through the research, the following study derived a more effective strategy to accommodate greater Chinese capital investment. There has been a worldwide increase in the number of letter of credit cases involving fraud recently. It may happen that the documents which are tendered to the banks under a documentary credit are forged, altered or fraudulent.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or falsification of any documents.

Keywords : Chinese ODI, China money, Investment Stimulation